전남 22개 시군 추석전까지 지역화폐 발행

'전남행복지역화폐' 상품권 공동 브랜드로…발행 예정액 1055억
내년 지급 농어민 공익수당도 지역화폐로…발행 규모 더 커질 듯

전남지역 22개 모든 자치단체가 추석(9월 13일) 전까지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전남도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남행복지역화폐'를 연내 22개 모든 시·군에서 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16개 시·군이 '나주사랑상품권', '순천사랑상품권', '해남사랑상품권' 등으로 불리는 지역상품권을 발행해 왔는데, 추석 전후로 6개 시·군(목포·고흥·화순·장흥·장성·신안)이 추가로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전남지역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상품권을 발행, 판매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들 지역 상품권을 '전남행복지역화폐'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고 '~사랑상품권'으로 불리는 지역상품권에 함께 표기해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전남행복지역화폐'는 전남지역 상품권 공동 브랜드로 개발됐다.

전남도는 지역 상품권 발행업무 협약으로 전남행복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도비 15억 원을 시·군에 지원하는 한편, '전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지역 상품권은 해당 지역 시·군에서 발행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만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를 제외한 슈퍼마켓, 시장, 학원 등 골목 상권에서 쓸 수 있다. 종이형 외에 광양과 영광은 전자카드와 모바일형 등으로 발행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남지역 11개 시·군이 420억 원 어치를 발행했는데 올해는 지난달 현재 16개 시·군으로 늘었고 추석 전까지 22개 모든 시·군이 발행키로 하면서 발행 예정액도 1055억 원으로 확대된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제공키로 한 만큼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자영업자 살리기 일환으로 지역화폐 발행비용의 4%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시·군은 자체 재원으로 발행 비용에 보태 지역민들에게 10% 안팎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완도군의 할인율이 10%로 가장 높고 나주 8%, 보성·순천·구례·강진 5% 등의 할인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영광·해남 등의 경우 평소에는 2~3% 할인율을 적용하다가 명절때 5%로 할인 혜택을 높이는 곳도 많다.

할인율이 10%이면 소비자는 농협 등 판매처에서 9만원을 내고 10만원짜리 지역화폐를 살 수 있는 식이다. 자영업자 등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 돌려받는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내 자금이 다시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6개월 이상 공실 15년이상 아파트 가구당 월소득 70%이하 입주 자격"

광주시 전국 최초 영구임대아파트 통합 사례 마련

청년 주거문제·공실해소 기대

광주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 자격을 완화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15년 이상 영구임대아파트가 6개월 이상 비어 있으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년 이상 비어 있으면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아파트는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만 입주할 수 있어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려 입주자 자격을 완화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또 비어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청년들을 입주시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영구임대주택 청년 세대 입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공실에 청년들이 입주함으로써 공실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청년입주자와 지역사회 청년활동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슬럼화 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4월 1호 청년이 입주하면서 국토부는 이 사업을 법령개정을 위한 사례로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광주를 방문했었다. 현 입주자격 기준으로는 소득기준이 낮아 청년들이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 등 의견을 수렴해 긍정적으로 검토, 법령 개정에 속도가 붙었다.

이 사례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연계한 모델로 전국의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에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1억을 지원받게 됐다. 이로 인해 12명이 입주할 수 돼 현재 공개모집에서 입주 신청을 한 12명의 입주자격을 각 구청에서 확인하는 중이다.

수요자 맞춤형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설개선, 복지서비스 확충, 법 제도 개선 등 공실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정부의 법령 개정을 끌어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임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적극적인 주거복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불법 건축물 발본색원…형식적 점검 책임 묻겠다"

시·자치구, 특별 점검 나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붕괴사고가 빚어진)클럽 점검이 형식적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정례회의에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주말 치평동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앞으로는 이런 불법 증·개축으로 무고한 시민의 인명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 클럽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대집행, 관계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7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경찰·소방과 합동으로 특별 대책반을 꾸려 특별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하루에만 불법 증축 8건, 불법 용도 변경 8건 등 3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점검 현장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도면을 보지도 않는 등 특별 점검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의 '눈대중 점검'이란 지적도 나왔다. 일부 업소는 단속을 피해 문을 닫아 점검하지도 못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일부터 11일까지 신안 증도 짱뚱어 해변 일원에서 '5GO 싶은 축제, 5GO 싶은 신안'이란 주제로 '섬갯벌축제'가 열린다. 지난해 신안군 증도면 우전해수욕장에서 열린 '섬갯벌축제'에서 어린이들이 머드팩 체험을 하고 있다.

신안 증도 짱뚱어 해변서 섬 갯벌축제 열린다

11일까지 갯벌 문화제 등 풍성

섬 갯벌 축제가 2일부터 11일까지 신안 증도 짱뚱어 해변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는 '5GO 싶은 축제, 5GO 싶은 신안'을 주제로 전남지사기 구간 마라톤대회, 신안군수배 카약·패들보드 전국 대회, 갯벌 배구, 갯벌 풋살 등 다양한 대회가 잇따라 펼쳐진다.

패들보드나 카약 등을 타보는 체험, 증도 호핑투어, 갯벌 레슬마니아(레슬링·닭싸움), 갯벌 깃발 뽑기 서바이벌, 태평염전 소금밭 체험 등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짱뚱어 해변 앞마당은 풀장과 에어바운스를 설치,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의 물놀이장으로 조성했고 갯벌 공방,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홍보부스, 음식부스도 배치된다.

문화 행사로는 워터락 물난장 파티 '갯벌 토토즐', 1004 아일랜드 '불꽃쇼', 바다 콘서트 '섬·갯벌이야기', 노래자랑 '갯벌가왕', 한여름 밤 '갯벌 낭만 문화제' 등을 마련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섬이 품고 있는 역사와 자원, 문화와 생태를 알리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무더위 취약계층 특별관리

쉼터 확대·재난도우미 운영

광주시는 최근 장마전선이 물러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 재난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8월달 폭염 및 열대야 전망을 보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처럼 심하지는 않겠지만, 평년기온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의 7월 폭염일수는 20일, 열대야 16일이 발생했으나 올해에는 각각 7일로 작년과 최근 10년에 비해 적게 기록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월30일 폭염경보가 처음 발효됐고, 31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34.4도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임에 따라 폭염을 재난 상황으로 관리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폭염 취약계층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건강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폭염을 피해 쉴 수 있도록 동네에서 가까운 경로당, 주민센터 등의 무더위쉼터를 1500곳으로 확대하고 냉방비 3억원을 지원했다. 본격적인 폭염으로 열대야가 지속될 때를 대비해 야간개방형, 거동불편자 이동서비스 등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자치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자율방재단 등 폭염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는 약 2600명의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고,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취약계층에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행동요령, 응급처치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한다.

다양한 폭염저감시설도 확충한다. 광주시는 도로나 광장에 차열도장을 해 열기를 줄여주는 쿨페이브먼트, 단열이 취약한 노후 경로당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칠하는 쿨루프사업을 완료하고, 교차로·횡단보도 등 도로변에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을 지난해에 이어 총 287개소를 설치했다.

마스터즈수영대회기간에도 경영, 다이빙, 수구가 열리는 남부대 경기장과 아티스틱 경기가 열리는 염주체육관에 대형 무더위쉼터, 쿨링존을 운영한다. 또 선수권대회기간 많은 호응을 얻은 쿨링포그를 가동해 광주를 찾아오는 선수, 관계자, 관람객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폭염대책을 추진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